

# 순천시, 기업친화 상생 행보 '눈길'

### 노관규 시장 율촌·해룡산단 방문 기업체 찾아 동반성장 방안 논의 하반기 '동반성장 프로젝트' 가동

지구촌 경제침체 속에 순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자체장의 기업 격려 행보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9일 기업친화도시 완성을 위해 율촌·해룡산단을 방문해 기업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논의했다.

노 시장의 첫번째 방문 기업은 현대IFC(주)로 약 5000억원의 매출과 70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글로벌 제철기업인 현대IFC(주)는 ESG 경영 실천 우수 순천 기업이다. 고도화된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철강산업의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을 꿈꾸는 최첨단 가공 기업인 ㈜도이프를 방문했다. 지난 2018년 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에서 터를 잡은 도이프는 2022년 산단 내 자체 공장을 설립할 정도로 높은 성장성을 보여준 신소재 유망 기업이다.

또 폭염에 따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 시장의 산업 시설 점검도 이뤄졌다. 세심하게 민생경제 현장까지 챙겨 기업 지원 및 현장에 로사향 정취하며 민생행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노관규(왼쪽 두번째) 순천시장이 임플란트 가공 기업인(주)도이프를 찾아 공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 기업이 겪는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직접 느끼게 됐다"면서 "민생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앞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친화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실로 민선8기 투자금액 1조 2000억원, 1300

여명 고용 창출의 투자를 이끌어 역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기업성장을 위해 '순천경제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기업 투자부터 글로벌 기업 성장까지 촘촘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기업 동반성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전어 참맛, 제대로 느껴보세요

### 16일부터 이틀간 보성 전어축제 울포솔밭해수욕장 다양한 행사

'전어의 참맛, 보성에서 느껴보세요'  
'제16회 전어축제'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열린다.

회천면민회가 주최하고 보성전어축제추진위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주제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은 삶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에 소금을 뿌려 구운 전어구이, 새콤달콤 무쳐 먹는 전어회무침, 오독오독 씹는 맛이 일품인 고소한 전어회까지 맛볼 수 있다.

16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울포솔밭해수욕장 남만의 거리 부스에서 전어요리 무료 시식회와 가수 진국이, 민지, 김수련, 조하도의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둘째 날인 17일엔 오전 9시 30분부터 직접 싱싱한 활어를 잡아보는 전어잡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 원(초등학생 이하 무료)

이며, 배부된 그물을 가지고 참여하면 된다. 전어잡기 체험 참가자에게는 전어잡기 체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이용 집기와 도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울포솔밭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초청 가수들의 축하공연과 전어축제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이 외에도 축제 하루 전날인 15일부터 17일까지 울포 남만의 거리 내에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부스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이번 축제의 안전을 위해 보건소의 의료지원반, 여수 해경 안전요원, 보성 소방서 응급 구조대와 구급차가 상시 대기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휴가철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철저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의 9미로 알려진 '전어'는 생선 중에는 저칼로리로 불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체중조절이나 성인병 예방과 신진대사에 좋고 영양의 균형을 맞출 무기질, 비타민도 풍부하다. 특히, 전어의 잔가시는 우유의 2배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고흥군 폭염피해 예방 집중 무더위쉼터·살수차 운영 생수 1150박스·부채 배부

고흥군이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무더위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지역 무더위쉼터 22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냉방시설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생수 1150박스와 부채 3000장을 읍·면에 배부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흥읍과 도양읍 등 주요 도로변에는 살수차를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주요 시가지 내에는 그늘막 21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무더운 시간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마을 안내방송 및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폭염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여수시, '소형어선 인양기' 10월중 14곳 설치

어민 일손을 돕는 '소형 어선 인양기'(사진)가 오는 10월 여수시 관내 항·포구 14개소에 설치된다.

여수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어선을 육지로 이동시켜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어획물 및 어구 인양에 이용돼 부족한 어촌 일손을 돕는데 효과가 있는 '소형어선 인양기'의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 조사와 수산조정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삼산면 거문항 등 14개소에 사업비 13억 7000만원을 투입해 10t 이하 전 기식·유압식 인양기를 설치하고 있다.

오는 10월 말까지 인양기 설치가 마무리되면 안전 검사와 시범 가동을 마친 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여수시 항·포구에는 139대의 인양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인구 최근 3년 연속 증가세 지속

### 인구정책위 시민 제안 11건 논의

광양시 인구가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광양시 인구는 2022년 1637명이, 2023년에는 498명이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을 비롯해 위원 1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광양시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활동 결과로 도출된 정책 제안 11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또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시책들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 제안들이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의 노고로 발굴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위원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최진순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광양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광양시를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주하는 도시, 모두가 들어와서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군, 학교 돌봄시설·지역 도서관 확대

구례군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돌봄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학교는 전국 20개교로 전남에서는 구례 광의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90억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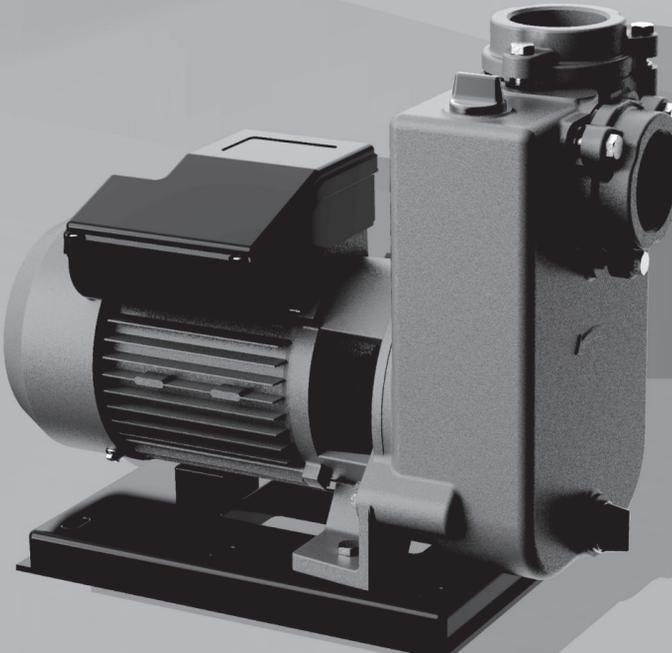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이 곳에는 거점형 돌봄 시설·평생교육실·지역

연계 마을도서관, 학생 안전 보살핌 공간(Day-care-space)-맞춤형 동아리방·AI 디지털 체험실 등을 조성한다.

구례군은 지난 7월에도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뽑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농촌 유학생들과 지역민이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막는 매력적인 정주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